

Market Index / 19일

코스피지수 ▲ 2124.78 +26.07	코스닥지수 ▲ 717.71 +2.85	유가(WTI, 달러) ▲ 53.90 +1.97	환율(원)	1USD 1196.58 100¥ 1103.85	살매 1155.42 팔매 1065.89	1EUR 1343.45 1CNY 178.80	살매 1219.03 팔매 161.78
---------------------------	-------------------------	------------------------------	-------	------------------------------	--------------------------	-----------------------------	-------------------------

마늘·양파 이어 맥주보리도 처리난 우려

최근 수확 막바지... 작년 견줘 생산량 20% 늘어 농협 "전량 수매 비계약 물량 업계 추가매입 조율"

도내 올해산 마늘과 양파에 이어 맥주보리의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 크게 늘면서 처리난이 예상된다.

19일 제주농협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맥주보리 총 생산량은 9200t으로 지난해 보다 20% 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전량을 수매해 당초 맥주를 만드는 주류업체의 계획물량인 7140t 이외의 비계약 물량인 2000여t을 추가로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전량을 수매해 주류업체와의 추가 매입을 조율하고 있다"라며 "특히 제주 발작물의 경우, 유통채소에 집중됨에 따라 이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맥주보리 수매 시 제주도청의 도움으로 타지역보다 1포(40kg 기준) 당 기존 4만원에 1만 원을 추가해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제주도의 추가 지원에 필요한 추정에서의 예산 확충

이 요구된다. 마늘과 양파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처리난도 가중되고 있다.

올해 제주산 마늘 생산량은 지난해에 견줘 10% 가량 늘어난 3만 6000t에 이른다. 전국에서 10% 가량을 차지하며 올해 수매가격은 1kg 당 3000원이다. 나머지 비계약 물량은 2500원에서 2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농협에서 수매해 보관 중이지만 중간 가공업체나 식자재업체에서 구매를 해야하는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판단해 관망세다. 농산물로 보관 과정에서의 신선도의 문제도 있어 농협의 손실로 이어

질 수 있다. 다만, 제주산은 타지역 마늘과 품질이 달라 시장 경쟁력은 다소 높다.

올해 제주산 양파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7% 늘어난 9800t이다. 전국의 생산량(132만t)의 0.7% 수준이다.

농협 관계자는 "6월 말 제주시 하노마트에서 특판행사를 벌일 계획이고 내년 4월까지 조생양파 출하 전까지 판매할 수 있어 처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소비 촉진을 위해 양파 구매와 함께 양파즙을 만들어 농협 고객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제주감귤 '굴로장생' 온라인 판매 고공행진

제주를 대표하는 하우스감귤 '굴로장생'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 상승세를 이어가며 올해 30억원 달성을 전망하고 있다.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인 지난 5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온라인 채널을 통한 굴로장생의 판매액이 6억3000만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견줘 212% 성장한 수치로 남은 기간 꾸준한 판매가 이뤄질 경우, 총 판매액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름 계절 과채류인 참외와 수박을 비롯해 블루베리와 체리 등 수입 과일의 공세에도 판매량이 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굴로장생의 높은 인기는 일주일내 수확한 물품을 주문 3일내에 소비자에게 전달되면서 신선도를 자랑, 소비자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고성만 법인 대표는 "하우스감귤에서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온라인 판매사업이 최근 좋은 효과를 거두며 다양화 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굴로장생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위해 품질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NH농협은행 제주영업부가 오는 25일까지 제주농협지역본부 고객에서 신상품 '탐나감자' 무료 나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 제주영업부 제공

신상품 '탐나감자' 무료 나눔

NH농협은행 제주영업부가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일주일간 제주농협지역본부 고객에서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신상품 '탐나감자' 무료나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영업부는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제14회 대한민국 우수농산물' 시상식에서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탐나감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과 농협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품가입 모든 고객에게 선착순 무료 제공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6월말 장마 시작... 농작물 병충해 방제 '비상'

따뜻한 겨울로 발생 잦아 감귤·참깨 등 예찰 중요

다음 주를 시작으로 제주지방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가 빈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제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 겨울, 평년에 비해 온도가 비교적 높고 눈날개도 없어 병충해 발생이 잦아지며 올해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제주도농업기술원과 제주농

협 등에 따르면 감귤은 물론 수박, 단호박, 고추 등 채소류와 더덕, 참깨 등의 발작물에 대한 병충해 발생에 따른 방제작업에 비상이 걸렸다.

노지감귤은 6월 중·하순부터 검은 점무늬병과 굼응에, 블록총채벌레 방제에 역점을 뒀다. 또 하우스 시설의 만감류는 장마철에도 응애류와 총채벌레 발생이 많아 질 수 있어 예찰 및 시기적절한 방제가 요구된다. 비가 오기 전 적용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봄순에 궤양병이 발생한 과원은 잎과 과실을 제거하고 추가 방제가 필요하다. 백금탁기자

노지감귤을 재배하는 B(49·제주 시 도련동)씨는 "지난해 겨울이 따뜻해 병충해가 심하고 특히 봄순 피해가 만만치 않아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라며 "당장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피해가 예상돼 걱정"이라고 말했다.

수박과 단호박은 장마초기 역병의 발생빈도가 높아 예방 위주의 방제가 필요하며 배수로 정비도 잘 해야 한다. 고추와 더덕, 참깨 등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역병 등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예방 방제와 침수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백금탁기자

주간 재테크 핫 이슈 반도체 업황 단기 기대감 줄이고...

장기적인 시장 관점서 투자가 바람직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이 증시에 다소 확산되고 있다. 협사리 결정은 나지 않겠지만 재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뚜렷하다.

향후 무역전쟁 상황에 따라 다시금 확산될 여지도 충분하니 환호하기는 이르지만 현재는 무역분쟁이 이슈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국증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반도체업종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 전체적인 상승으로 전락되거나 개별 종목 및 테마주 위주의 증시 상황이 지속 될 수 있다. 두 시장 모두 참여하는 전략 자체가 다르게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말, 올해 초 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이 증시에 다소 확산되고 있다. 협사리 결정은 나지 않겠지만 재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뚜렷하다.

향후 무역전쟁 상황에 따라 다시금 확산될 여지도 충분하니 환호하기는 이르지만 현재는 무역분쟁이 이슈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국증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반도체업종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 전체적인 상승으로 전락되거나 개별 종목 및 테마주 위주의 증시 상황이 지속 될 수 있다. 두 시장 모두 참여하는 전략 자체가 다르게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말, 올해 초 까지만 하더라도

포스트 미·중 무역분쟁 이슈 반도체업종에 고민을 삼성전자·하이닉스 메모리 시장 패권 당분간 공고

도 반도체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것이며 향후 2분기를 전후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분석과는 다른 결과들이 보이고 있다.

1분기말 메모리 빅3 재고회전율은 161일 수준으로 업체별로 SK하이닉스 124일, 마이크론 135일, 삼성전자가 193일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1분기말 기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재고자산 규모는 14조 6000억원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분기 매출액의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삼성전자의 과도한 재고

는 향후 메모리 업황 회복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재고가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서버DRAM 재고 때문으로 2018년 3분기 6억GB를 출하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2019년 1분기 출하량은 2억GB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사이 상당량의 서버DRAM 재고가 쌓여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렇기에 현 상황에서 매출 증가율이 재고자산 증가율을 앞지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2015-16년 침체 직전까지

중국과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공세가 쉽게 가라앉을만한 상황이 아니기에 메모리 시장에서 패권을 쥐고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패권은 당분간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TSMC가 독주로 하던 파운드리 분야에서 EUV라는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 화웨이 제재로 인한 5G 시장에서의 주도권 경쟁에서의 우위는 이러한 우려감 속에서도 유효한 상황이다.

반도체 업체에 대한 단기적인 실적은 일단 낮추는 것이 주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업황의 변화역시 하반기가 돼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한국 반도체 집권은 오히려 공고해질 기회를 얻었고 향후 진행될 파운드리, 그리고 5G 산업에서의 성장을 예상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가 바람직하다.

현 정 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하귀2리	서흥동	유수암리	연동1.5름	토산리(급매)	와흘리	고산리
자연녹지(전) 일주도로점 223㎡ 바다, 한라산조망 2억2천	호텔 25실 해안도로점 전 객실 바다뷰 34억5천	계획관리(전) 2차선점할 400㎡ 오수관공시중, 다용도부지 1억7900만	마리나호텔사거리 인근 10층 중 7층 로열층 남향, 위치좋은 1억5200만	계획관리(과수원) 4m도로점할, 4056㎡ 건축가능토지 5억1천	계획관리(전) 전원주택부지 951㎡ 현과수원사용, 건축허가득 3억4500만	계획관리(전) 자연취락지구 731㎡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4억4600만

등록번호: 제 50110-2017-002100호
대표공인중개사: 노진업
위치: 연복로 606, 3층

제주향 공인중개사 064-723-8850 010-4692-0952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010-8660-1263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득)
-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표선면 가시리 계획관리 35,000㎡ (2차선점, 임·과)

-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오동동 전·임야 18,000㎡(생산관리지역)
- 매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점)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 한경면 저지리 전(11,000㎡) 계획관리지역
- 함림읍 용포리(주거지역) 2,000㎡ 바다점

동부 공인중개사 ☎ 010-2800-4595
064-747-5115

※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원

- 해안동취락지구내 주택용지 788㎡ 5억
- 노형 6차선 점 자연녹지 2,025㎡ 52억
- 협계금강산로인근 신축주택 556/90㎡ 3.95억
- 수산동 제주시인근 카페용경관양호 620㎡ 3.1억
- 판포 바다경관 조 자연녹지 3028㎡ 6.49억

※하귀택지개발내 2중주거 319㎡ 4.99억원

- 아라동기차촌내 1090㎡ 9.24억
-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400만원
- 유수암 펜션 건물488㎡ 대781㎡ 6억원
- 유수암 2차선 변 주택용지 519㎡ 2.5억
- 중문서측 일주도로 4차선 점 토지 8,244㎡ 45억

※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억

- 연동2중주거 4352㎡ 주택122㎡ 11억
- 어울 제안로인근 바다전경양호 969㎡ 11.7억
- 우도하고수동해수욕장인근 5,050㎡ 9.99억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9억
- 서귀포양양장 16,169㎡ 100억원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시 민 장 의 사

〈서귀포 천주교묘지 책임 총관리〉
사무실 : ☎ 064) 732-5200, 762-5316 H·P 010-3696-3172, 010-8661-6560

택일, 토신제 / 축문, 제관, 제물, 장례일체 (매장·화장·묘역) 중형, 소형, 차량완비 / 향상주, 야대기 방 문 상 담 환 영

주소: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1 (남원) | 연락처: 064-732-5200